
예수는 논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야기』를 내면서

이야기는 민중언어이다. 논설이니 논문이니 하는 것은 일정한 가설을 전제하고 그것을 입증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논설은 그물로 바다의 물을 뜨는 것과도 같아서 물은 물론이고 그물의 크기보다 작은 것은 다 빠져버리고 그물의 크기보다 큰 것, 즉 목적인 것이 걸려든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는 사람의 호흡과도 같이 삶에서 흡수(체험)했던 것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이야기는 삶을 말하므로 유기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내거나 어느 부분만 꼬집어내어 전체의 뜻을 대신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통째로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산 물체에 접하는 듯한 생동감을 경험할 것이다.

이야기는 입에서 나온 그대로가 원모습이다. 그것은 사람의 목줄을 타고 숨과 함께 나온 것으로 땅에서 방금 파낸 감자처럼 싱싱하다. 그런데 그것이 문자를 배운 사람의 입으로 반복되거나 문자화되면 달라진다. 바로 파낸 감자와 삶은 감자만큼이나 달라진다. 원래의 것보다 더욱 다듬어져서 걸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생기는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분석되어 논문화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

이 되고 만다.

민중은 논(論)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문자를 배우고 삶을 통해 높은 성숙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논’에서 ‘이야기’로 돌아간다. 석가가 그렇고 공자가 그러하다. 일생을 학문으로 경륜을 쌓은 사람들도 연륜이 높아지면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 대신에 ‘이야기는 존재의 품’이라고 말함직하다. 어떤 차원에 들어서면 따지고 논하는 것이 오히려 한때의 하찮은 말장난처럼 생각된다.

예수는 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석가, 공자 들처럼 학문세계를 거친 흔적도 없다. 그의 연륜 자체로 보아서도 그런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배운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종교지도자들이 그의 행태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그때 민중이 모두 아는 이야기만 했다. 일부러 수준을 청중에 맞게 낮추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언어였다.

그의 말을 전형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른바 그의 ‘비유’들이다. 예수의 역사성의 많은 점을 의심할 뿐 아니라 불가지론(不可知論)에 빠진 사람들도 그의 비유의 역사성은 받아들인다. 비유는 그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 비유들은 그 소재나 표현에 있어서 문자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말이다. 그의 이야기에는 꾸미는 것이 없다. 맑은 호수에 모든 것이 다 비치듯이 그대로 그의 삶과 주변의 것이 다 드러난다. 같고 다름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숨결이 내비친다.

이른바 학자들은 그것을 저마다 제 방법으로 난도질해서 ‘예수의 비유 연구’라는 무수한 연구서적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렇게 내놓

은 것은 재생산품일 뿐이지 그의 이야기를 되살려내지는 못했다. 나 역시 그런 방법으로 난도질하는 일로 밥술을 얻어먹어왔다.

이야기를 이야기로 풀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오래 품어오다가 때를 찾아 이 작업에 착수하여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이다. 이 작업에서 노력한 것은 지금까지 배워온 ‘먹물냄새’를 지우는 일이었다. 모든 ‘학문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그저 순수한 이야기를 오늘에 사는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하느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은 본래 가진 것을 써먹고 그것을 남에게 시위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니까!

또 하나의 고충이란 내가 예수의 이야기의 현장인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아스팔트가 깔린 길 위로 자동차들이 살인적 독기를 뿜으며 달리는 현장에 살고 있는 탓에 예수의 이야기에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연히도 이 글을 쓸 무렵 서울의 끝 변두리 우면산 기슭에 집을 옮기게 되었다. 나는 줄곧 숲속의 공기를 마시고 대지의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나는 숨쉬는 자연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내 나뼠으로 오래 소외되었던 자연과 다시 인연을 맺을 뿐 아니라 함께 숨쉬는 감각에서 울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고는 여전히 먹물냄새를 지울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의 이야기들을 모조리 정성껏 듣고 오늘의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전 달되기를 바란다.

1992년 가을
우면산 아래에서
안병무